

# 글쓰기

비판적 읽기와 요약하기  
인문 pp. 56~83, 이공 pp. 60~87

# 전시 학습 확인

## ■ 개요

- 글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 설계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하되 간결해야 한다.

## ■ 자료 수집

-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찾는데 집중한다.
- 자료를 찾으면 반드시 목록화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학습 목표

- ❖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이해한다.
- ❖ 비판적 사고의 특징을 이해한다.
- ❖ 비판적 읽기가 요약하기와 단락 형성에 도움이 됨을 안다.
- ❖ 요약의 방법을 이해한다.
- ❖ 글을 요약할 줄 안다.



# 비판적 읽기



## 비판의 개념

-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과 연관된 일체의 지성적 활동



## 비판적 사고의 특징



비판적 사고는 회의적 태도를 수반한다.

- 개방적 태도에 입각한 사물에 대한 일체의 의심



비판적 사고는 엄밀한 분석을 전제한다.

- 의견, 견해에 대해 분석을 바탕으로 주장의 본질을 이해

 비판적 사고는 설득의 방법을 함양한다.

- 비판적 사고에 입각해야만 타인을 설득 가능



비판적 읽기의 의의

- 비판적 읽기는 주어진 글의 내용, 구조,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 행위
- 이를 위해 단락과 단락의 관계, 한 단락 내의 구조를 이해하며 읽는 행위

- 단락 사이의 관계, 한 단락의 내의 구조를 이해하면 요약이 수월
-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단락의 형성, 글 작성할 때 비판적 입장에서 쓰게 됨을 의미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 활동

다음의 두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와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 보십시오.

## 한자어 지도는 학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가을학기부터 초·중학교에서 방과후 한자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만화에서 학습지, 급수시험에 이르기까지 한자 학습의 열풍이 거세다. 이에 비하면 공교육의 대응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방과후 한자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저항도 있어 이에 대한 연착륙(soft landing·소프트 랜딩) 방안을 제시해 본다.

표음(表音)문자는 음을 읽기에 좋고, 표의(表意)문자는 뜻을 알기에 좋다. 표음문자로만 적혀 있는 현행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1차적인 고통은 한자(漢字)가 아니라 한자어(漢字語)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한자어를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뜻을 몰라 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체 학생의 80%가 낮은 수업 이해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문장 가운데 핵심 어휘는 100% 한자어다. 한자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머릿속이 “○○○ ○○ ○○○를 ○○해야 한다”와 같이 캄캄하기만 하다. 한자 지식 부재로 이해력·사고력·독해력이 바닥 수준을 헤매고 있다. 이것이 ‘공부 혐오증’ ‘학교폭력’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매일 매시간 겪고 있는 절골지통(折骨之痛·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인식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 탄식함)과 더불어.

한자어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다만 교과서 한자어에 대한 어휘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방과후 한자교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자교육은 특정 선생님의 의해 특정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한자어 지도는 과목마다 매시간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다. 영국 속담 ‘Strike the iron while it’s hot’도 같은 뜻이다. 과목마다 수업시간에 겪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을 꼭꼭 참아 두었다가 방과 후에 몰아서 해결 하겠다면 ‘식은 쇠’를 두들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다.

‘배려’란 한자어의 뜻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쏟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면 금방 안다. 이 경우에 ‘배’와 ‘려’ 두 글자가 각각 무슨 뜻인지 알면 좀 더 분명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나눌 배’(配)와 ‘생각 려’(慮) 같은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남에게 생각(慮)을 나누어(配) 줌’이라는 한자어 속뜻 정보를 얻도록 한자어 지도를 하면 된다.

종합하자면 수학 능력, 즉 학력(學力)은 한자어 어휘력에 달려 있다. 전 과목 교과서에 석류알처럼 송송 박혀 있는 한자어를 접할 때마다 국어사전을 통해 ‘단김에’ 이해하는 것이 한자학습의 첫걸음이자 학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또한 시종엔 한자어 속뜻을 풀이한 사전도 나와 있다. 이러한 어휘 지도는 한자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과목, 모든 선생님의 기본적인 책무다. 특정 선생님의 의해 특정 시간(방과 후)에 실시하는 한자교육에 대한 일부의 반감과 저항을 사전(事前)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비행기 조종사의 소프트 랜딩은 목숨을 살리고, 학교 선생님의 한자어 지도는 학생을 살린다.



## 아이들에게 한자 명에까지 씌울 텐가

우리 아이들은 영어 조기교육 등 너무 많은 배움에 지쳐 있다. 시험 점수에 기를 펴지 못하고 온실 속의 꽃처럼 허약하게 자란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제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나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무분별한 욕심과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앞날뿐만 아니라 나라의 앞날이 몹시 걱정된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초등학교 책에 한자말이 많은데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과 한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을 들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책에 나오는 한자말은 거의 일제 식민지 때 배우고 길들여진 일본식 한자말이다. 광복 뒤에 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고 했으나 일본식 한자 혼용을 하자는 이들이 반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교과서에 있는 '세모꼴'이나 '네모꼴'이란 토박이말을 '삼각형'과 '사각형'이란 한자말로 바꿨다. 이렇게 한자말을 늘려 놓고는 이제 그 한자말을 알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또 이들은 일본처럼 한자능력검정시험제도를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아 대기업 입사시험과 일류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면서 한자공부를 부채질했다. 그래서 한 해에 응시료와 교재 판매로 100억여 원을 번다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시험을 가장 많이 본다 고 한다.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 책에 있는 한자말이며 이를 한자시험 관련 단체들이 가르치고 관련 교재를 만들어 팔고 있다. 그런데 그 한자말 공부를 이제부터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세금으로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사교육을 도와주겠다는 말이다.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마쳐야 그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를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글자를 모두 안다. 그들에 견주면 10여 년이란 시간과 힘을 벌고 있으나 그 시간과 힘을 한글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기술을 익혀 창조력을 키우는 데 쓰지 못하고 한자와 영어를 배우는 데 다 허비한다. 복 떠는 일이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한자교육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800자를 배우는 것과 초등학교 자율학습으로 충분하다. 한·중·일 공용한자 800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하루빨리 한문 전문가를 키워서 옛 한문책을 국역하고, 일본식 한자말을 씻어내고 우리 토박이말을 되살려내야 한다. 옛날보다 한자를 덜 쓰는데도 오히려 더 가르치겠다는 것은 딴 목적이 있거나 말글 본질을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弟子(제자)'란 말의 글자 뜻은 '아우 아들'이지만 그 말뜻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말뜻은 그 말소리와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지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 라디오 방송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자교육 강화는 우리 말글을 못살게 구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방과 후에라도 동무들과 뛰놀며 튼튼한 몸과 정신력을 키우게 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자. 아이들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자.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고 나라 힘을 키우는 일이다.

## 한자어 지도는 학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가을학기부터 초·중학교에서 방과후 한자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만화에서 학습지, 급수시험에 이르기까지 한자 학습의 열풍이 거세다. 이에 비하면 공교육의 대응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방과후 한자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저항도 있어 이에 대한 연착륙(soft landing·소프트 랜딩) 방안을 제시해 본다.

표음(表音)문자는 음을 읽기에 좋고, 표의(表意)문자는 뜻을 알기에 좋다. 표음문자로만 적혀 있는 현행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1차적인 고통은 한자(漢字)가 아니라 한자어(漢字語)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한자어를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뜻을 몰라 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체 학생의 80%가 낮은 수업 이해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문장 가운데 핵심 어휘는 100% 한자어다. 한자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머릿속이 “○○○ ○○ ○○○를 ○○해야 한다”와 같이 캄캄하기만 하다. 한자 지식 부재로 이해력·사고력·독해력이 바닥 수준을 헤매고 있다. 이것이 ‘공부 혐오증’ ‘학교폭력’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매일 매시간 겪고 있는 절골지통(折骨之痛·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인식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 탄식함)과 더불어.

한자어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다만 교과서 한자어에 대한 어휘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방과후 한자교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자교육은 특정 선생님의 의해 특정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한자어 지도는 과목마다 매시간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다. 영국 속담 ‘Strike the iron while it’s hot’도 같은 뜻이다. 과목마다 수업시간에 겪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을 꼭꼭 참아 두었다가 방과 후에 몰아서 해결 하겠다면 ‘식은 쇠’를 두들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다.

‘배려’란 한자어의 뜻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쏟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면 금방 안다. 이 경우에 ‘배’와 ‘려’ 두 글자가 각각 무슨 뜻인지 알면 좀 더 분명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나눌 배’(配)와 ‘생각 려’(慮) 같은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남에게 생각(慮)을 나누어(配) 줌’이라는 한자어 속뜻 정보를 얻도록 한자어 지도를 하면 된다.

종합하자면 수학 능력, 즉 학력(學力)은 한자어 어휘력에 달려 있다. 전 과목 교과서에 석류알처럼 송송 박혀 있는 한자어를 접할 때마다 국어사전을 통해 ‘단김에’ 이해하는 것이 한자학습의 첫걸음이자 학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또한 시종엔 한자어 속뜻을 풀이한 사전도 나와 있다. 이러한 어휘 지도는 한자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과목, 모든 선생님의 기본적인 책무다. 특정 선생님의 의해 특정 시간(방과 후)에 실시하는 한자교육에 대한 일부의 반감과 저항을 사전(事前)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비행기 조종사의 소프트 랜딩은 목숨을 살리고, 학교 선생님의 한자어 지도는 학생을 살린다.

## ■ 제목과 서론에서 알 수 있는 사실

- 한자어 지도가 학력 향상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루겠구나!

- 한자 교육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겠구나!

⇒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본론부(2~5단락)의 문제점

- 한자어의 뜻을 몰라 학생의 80%가 낮은 수업 이해도 때문에 고민

⇒ **근거의 제시가 없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근거 밝혀야 함

- 한자 지식의 부재가 공부 혐오증, 학교 폭력의 원인

⇒ **논리의 비약**, 학력 향상의 지름길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

- 연착륙 방안으로서 해당 과목 교사의 한자 지도

⇒ 교사의 한자 지도 부담감

- 한자를 알아야 한자어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음

⇒ 국어사전에서 뜻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음

## ❖ 한자와 한자어의 차이

⇒ 한자를 알아도 단어의 뜻은 한자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음

推敲 :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음

推 : 밀 (퇴)    敲 : 두드릴 (고)                      哲 : 밝을 (철)    學 : 배울 (학)

哲學 :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

### 아이들에게 한자 명에까지 씌울 텐가

우리 아이들은 영어 조기교육 등 너무 많은 배움에 지쳐 있다. 시험 점수에 기를 펴지 못하고 온실 속의 꽃처럼 허약하게 자란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제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나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무분별한 욕심과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앞날뿐만 아니라 나라의 앞날이 몹시 걱정된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초등학교 책에 한자말이 많은데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과 한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을 들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책에 나오는 한자말은 거의 일제 식민지 때 배우고 길들여진 일본식 한자말이다. 광복 뒤에 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고 했으나 일본식 한자 혼용을 하자는 이들이 반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교과서에 있는 '세모꼴'이나 '네모꼴'이란 토박이말을 '삼각형'과 '사각형'이란 한자말로 바꿨다. 이렇게 한자말을 늘려 놓고는 이제 그 한자말을 알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또 이들은 일본처럼 한자능력검정시험제도를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아 대기업 입사시험과 일류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면서 한자공부를 부채질했다. 그래서 한 해에 응시료와 교재 판매로 100억여 원을 번다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시험을 가장 많이 본다 고 한다.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 책에 있는 한자말이며 이를 한자시험 관련 단체들이 가르치고 관련 교재를 만들어 팔고 있다. 그런데 그 한자말 공부를 이제부터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세금으로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사교육을 도와주겠다는 말이다.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마쳐야 그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를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글자를 모두 안다. 그들에 견주면 10여 년이란 시간과 힘을 벌고 있으나 그 시간과 힘을 한글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기술을 익혀 창조력을 키우는 데 쓰지 못하고 한자와 영어를 배우는 데 다 허비한다. 복 떠는 일이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한자교육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800자를 배우는 것과 초등학교 자율학습으로 충분하다. 한·중·일 공용한자 800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하루빨리 한문 전문가를 키워서 옛 한문책을 국역하고, 일본식 한자말을 씻어내고 우리 토박이말을 되살려내야 한다. 옛날보다 한자를 덜 쓰는데도 오히려 더 가르치겠다는 것은 댄 목적이 있거나 말글 본질을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弟子(제자)'란 말의 글자 뜻은 '아우 아들'이지만 그 말뜻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말뜻은 그 말소리와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지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 라디오 방송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자교육 강화는 우리 말글을 못살게 구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방과 후에라도 동무들과 뛰놀며 튼튼한 몸과 정신력을 키우게 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자. 아이들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자.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고 나라 힘을 키우는 일이다.

## ■ 제목과 서론에서 알 수 있는 사실

- 한자 교육을 반대하겠구나!
- 한자말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다루겠구나!

## ■ 본론부(3~6단락)의 문제점

- 고유어를 버리고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  
⇒ 한자말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다룬 것은 아님
- 교육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임  
⇒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다룬 것은 아님

- 현재의 한자교육으로 충분

⇒ 한자어를 모르는 것에 대한 방안은 아님

#### ❖ 초등 한자 교육과 어휘력

⇒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 고유어를 사용한다고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휘뚜르마뚜르 :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우는 모양

⇒ 어휘력 교육에 대한 방안 없음

## ■ 비판적 읽기의 본질

- ⇒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따지는 것
- ⇒ 필자가 전달하려는 바의 핵심을 찾는 것
- ⇒ 필자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것

## ※ 비판적 읽기는 텍스트에 국한된 것이 아님

- 사물, 현상, 관념 등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예) 돈 - 경제 활동의 도구, 재화의 교환 수단으로써 사회적 약속

부(富)와 권력의 상징, 인간 소외와 불평등의 상징



# 광고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

2016년 투싼 광고



모델 : 류준열 (1986년생)

상품과 구매대상을 고려



2019년 캐딜락 CT6 지면광고

- 광고의 특징

  - CT6 - 자동차가 정중앙 위치 → 상품이 부각

  - 투싼 - 자동차 외관이 불분명 → 모델 얼굴이 부각

- 가격

  - CT6 - 최하 8천만원 후반 (3,500cc 이상급)

  - 투싼 - 3천만원 대 (2,000cc급)

- 광고 당시 모델의 나이

  - CT6 - 33살

  - 투싼 - 30살

※ 광고의 효과 -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촉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함

■ 활동 - 아래 광고는 무엇을 의도하였을까?



옆의 언더웨어 광고를 본 느낌은?

잘 만들었나요? 그 이유는?

그저 그렇나요? 그 이유는?

Oliviero Toscani (Italy, 1942~ )

- 수녀의 이미지 - 순수함, 성스러움 등
  - 속옷의 이미지 - 드러내서는 안 되는 옷, 은밀함 등
  - 속옷 광고의 모델로 젊은 수녀
    - 거북하다, 부담스럽다, 민망하다 등등
  -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남녀 보편적 심리
- 
- ❖ 수녀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서는 안 되나?
  - ❖ 종교적 이미지로 순수함을 표현하는 것이 종교 모독인가?



# 요약하기



## 요약하기의 개념

- 요약은 글의 핵심 내용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다.
- **발취**(拔萃)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을 포착하여 간결한 용어와 문장으로 재진술하는 것이다.

⇒ 서평처럼 요약하지 않도록 한다.

예) **필자는 ~, 이 글은 ~ (X)**







## 요약하기의 종류

- 비형식적 요약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줄여 표현하는 것
- 형식적 요약 : 글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논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 비판적 분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약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요약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비형식적 요약을 우선 많이 해 보자.





## 요약 작업의 유의사항

요약하기의  
필수요소

- 글에서 다루는 중심 문제, 즉 논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자.
- 글에서 핵심 개념과 그 개념이 뜻하는 바를 파악하자.
- 글에서 저자의 논지, 즉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자.
- 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자.
- 글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 글 전반에 깔려 있는 가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 글쓴이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필요



## 요약의 방법



### 핵심 문장(주제문) 선택

- 잘 쓴 글에는 단락마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담긴 핵심 문장이 있다.  
핵심 문장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 비본질적인 내용 삭제

- 논지와 논거의 지지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 내용을 찾아 삭제하며 줄이는 방법이다. 예시 단락이나 반복되는 내용이나 표현, 부사어 등을 찾아 없애며 줄여 간다.



### 일반화

- 서로 연관되는 개념들을 가능한 한 상위어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 교재 연습문제

###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핵심 문장을 찾아 정리해 보자. (인문 p.76, 이공 p.72)

우리에 갇힌 동물보다 자연공원에 방목된 동물이 더 자유로운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 허용된 자유는 언제든지 허락한 측에서 철회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자유, 아니 정확히 말해 자유를 표방한 기묘한 억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자연농원의 동물은 자신을 가두는 방 쪽으로 가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가운데로 모인다. 하긴 벽에 직면하는 순간,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테니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는가.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것이 허용된 자유의 논리다. 허용된 자유를 자유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검열하게 된다. 체제가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약하게 외칠 것이다. “저는 한계를 지켰는데, 왜 그러세요?” 너무나 어리석고 나약한 한탄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허용된 자유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

— 강신주, 『김수영을 위하여』(천년의 상상, 2012: 21)

## 2. 다음 글에서 핵심 문장을 찾아 불필요한 내용이나 비유 등을 삭제하여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인문 p.77, 이공 p.73)

~~안타깝게도~~ <sup>부사어</sup>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 <sup>비유적 표현</sup>를 하면서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정책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sup>이유</sup> 이미 안정된 자리를 차지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사용해 효과를 보았던 민족주의적인 정책들을 통해 경쟁국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sup>예시</sup> 부자 나라들의 클럽에 최근 합세한 나의 모국 한국도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sup>예시</sup> 한국은 한때 해적판의 천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한국 가요 해적판 CD와 한국 영화의 해적판 DVD를 만들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 2007: 99)

주제문 : 경쟁국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

## ■ 요약하기의 한 방법

### ■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1992)

감독 :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 : 클레이그 셰퍼, 브래드 피트



- 작품의 초반부(5분 정도 후) 주인공 노먼 F. 매클린이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는 장면

장교 출신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글을 읽고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요약하라고 한다. 요약을 잘 했을 때 놀아도 좋다고 허락을 해 준다.

- 아들 노먼 F. 매클린은 후에 훌륭한 문학교수가 된다.

☞ 요약은 글의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요약은 한 번에 가능하지 않다. 요약한 것을 글과 비교해 보고 요약하기를 반복해야 한다.



## 과제

최근 관심을 갖게 된 분야를 다룬 칼럼을 읽고 요약하시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견해를 서술하시오.

분량 : A4 1장 = 요약 (1/3) + 생각/견해 (2/3)

참고 : 칼럼 작성자 및 칼럼 제목, 출처를 밝혀 주세요.

제출 : 6주차 수업 전까지 글쓰기 활동 게시판에 업로드하세요.

## 과제 안내

과제의 목적 : 비판적 읽기와 요약하기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기본이 되는 능력으로 글쓰기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 중 하나임.

이번 과제는 이를 연습하려는 것

제출 조건 : 칼럼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이고 근거를 제시해야 함

평가 : 절대 평가 - 요약 상5/중4.5/하4      의견 상5/중4.5/하4

요약의 정확도

의견의 충실도

칼럼은 언론사 홈페이지 **오피니언란**에 기고된 글로 한정함

사설, 잡지에 기고된 칼럼은 인정하지 않음

※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이어서 칼럼의 성격과 맞지 않고,  
잡지에 기고된 칼럼은 분량이 길어 요약하기가 쉽지 않음.





## 그 똥은 얼마인가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은 미술계의 대표적 상투어다. 그러나 진정 상처를 치유하는 미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의술(醫術)로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문한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나는 이 유구한 안타까움을 또 한번 확인해야 했다. 우여곡절 코로나 사태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3년 만에 열린 전시, 영혼을 주제 삼아 치유와 회복의 장(場)을 표방했으나 그 의미를 해하는 엉뚱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 성조기에 똥을 그려넣고 불태우는 지극히 반미(反美)적인 그림이었다. 개막식에 앞서 초청자들을 몰고 다니던 어느 좌파 단체 인사는 이 그림 앞에서 “미국이 통일을 방해했다”며 “똥 같은 놈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유 대신 상처를 벌리는 민중미술의 케케묵은 구태(舊態)가 2021년의 비엔날레를 장식하고 있었다.

누구나 똥을 싸지만 그것이 변기로 내려가면 별 탈이 없다. 그러나 포장돼 진열장에 오르는 순간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미술 담당 기자로 일하며 겪는 직업병도 이와 관련이 크다. 수준 미달의 공산품이 공허한 수사(修辭)를 등에 업고 신경을 자극할 때마다 극심한 울화가 몰려오는 까닭이다. 작가가 똥을 싸놔도 일부 평론가와 큐레이터 등이 각자의 공공이대로 맥락과 의미를 부여해 띄우니 상수도가 맑을 틈이 없다. 이를 비웃듯 이탈리아 전위예술가 피에로 만초니(1933~1963)는 자신의 똥을 통조림 깡통에 넣어 밀봉한 뒤 ‘예술가의 똥’이라는 제목을 달아 1961년 발표한 적이 있다. 갓 썩 따끈따끈한 대변을 30g씩 나눠 담은 뒤 ‘신선 보존’ 라벨까지 붙였다. 이 똥은 2016년 경매에서 약 4억원에 팔렸다. 적어도 이 같은 도발은 흥미롭기라도 하다.

“일단 유명해지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쳐 줄 것이다”라는 말은 미국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1928~1987)이 남긴 말로 잘못 알려져 있다. 출처는 오리무중이 나, 최근 미술계 생태를 정확히 타격한다. 개념의 식민지가 된 현대 미술에서 완성도와 미추(美醜)의 구획은 이미 사라졌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호해지니 개나 소나 예술가 행세를 한다. 과잉 해설이 예술가를 게으르게 만들고, 기본기 대신 충격 요법과 잔피가 횡행한다. 미국 철학자 스탠리 카벨이 지적했듯 “사기의 가능성”이 판치는 것

이다. 프랑스 비평의 날카로운 회의주의자 에밀 시오랑(1911~1995)은 일찍이 갈파했다. “위선적인 광신자는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 믿음 없이는 미학을 논하는 일 자체가 곤욕이다.

악취 속에서도 꽃은 자란다. 이례적으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각광받은 작품도 ‘꽃’이었다. “알아서 멋지게 해석해줘” 식의 무책임한 출품작을 뒤로하고, 옛 광주국군병원(전시장)에 놓인 데이지꽃 5000송이에 시선이 쏠렸다. 문선희(42) 작가는 “데이지는 뿌리부터 꽃잎까지 약재로 쓰인다”고 말했다. 직접 땅에 씨 뿌리고 물 줘 길러낸 그 꽃으로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에 좁은 오솔길을 만들었다. 그 길을 조심조심 걸으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세심함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저 담담히 피어있는 꽃, 그러나 단순한 생화(生花)에 이토록 위안의 찬탄이 쏟아진다면, 막대한 돈과 인력을 써가며 미술품을 제작하고 전시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예산은 97억원 수준이다.

침침한 미술관을 빠져나오자 흐드러진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아름다움의 분비물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소리를 터뜨리며 몽상에 잠겼다. 이제야 겨우 치유받는다는 듯이.

2021년 4월 8일 조선일보 정상혁 미술 담당 기자

\* 2021년 광주 비엔날레는 치유 대신 상처를 조장하는 민중미술의 구태로 채워져 있어 아쉽다.

\* 치유 대신 상처를 조장하는 민중미술의 구태로 광주 비엔날레를 채울 바에는 막대한 돈과 인력을 쓸 필요가 없다.

글쓰이는 치유라는 용어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이 글은 “그러나 진정 상처를 치유하는 미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후 치유와 회복의 장, 위안의 찬탄, 벚꽃으로 치유 받는다는 내용으로 “치유하는 미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치유하는 미술”은 오직 심신을 위로하거나 편안하고 익숙한 미술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조기에 똥을 그려놓고 불태우는 그림도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정신적 치유가 아닌가?

이러한 편견 아래에서 “똥”은 민중미술의 케케묵은 구태(舊態), 수준 미달의 공산품, 최근 미술계 생태, 잔피 등의 대명사로써 사용된다. “똥”은 글쓰이의 미술계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용어이며, 글의 표현에 따르면 “개념의 식민지”의 산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쓰이가 위안을 느끼는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생화(生花) 작품이었으므로 “형상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술사를 살펴보면 근대 이후부터 형상의 미술로부터 탈피하고자 추상 미술 및 개념의 예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의 미술, “개념의 식민지”의 산물은 기존의 기법으로부터 탈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개념 위주의 미술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이 글은 미술사로부터 비롯된 현대의 산물을 완전히 부정하며 “똥”이라 표현하고, 글쓰이만의 미술이 옳다는 정의를 관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론이 났는가? 겉모습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생화 같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주는 편안함을 미술의 치유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형상 위주의 미술에서 탈피해 개념 위주로 발전한 현대 미술을 고려치 않고 “똥”이라고 표현했다. 겉모습에서 탈피한 미학을 겉모습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현대 미술에서 진정으로 “치유하는 미술”을 보기 위해서는 형상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아이디어, 개념을 봐야 한다. 그러면 미술관에서 악취가 나는 작품들이 아니라 치유하는 작품들이 보일 것이다.

## 의견문 예시

칼럼에 대한 의견을 쓴다는 것은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칼럼에 대한 의견을 쓰려면,  
우선 칼럼니스트가 **칼럼에서 다루는 주제에 어떤 견해를 밝히는지 파악**하고,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

그런 다음 칼럼니스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칼럼을 근거로 설명**하면 된다.



Q & A

수고하셨습니다.